朝鮮日報
發行所 朝鮮日報社

一億五千萬弗援韓案
美下院外委서遂可決
來週中全體會議에廻附豫定

【워싱톤廿五日發INS合同】韓國에서의共產主義勢力을阻止하기爲한 一億五千萬弗의對韓緊急援助案은 廿四日下院外交委員 秘密會議에서 드듸어可決되었다 따라서 同委員會代理 「리챠ー드·빌스크」氏는 來七月一日부터始作되는一九五○年新會計年度의政府要求額을承認하는 法案을同委員會가批准하였다고 發表하였다

順調通過期待
林外務長官感謝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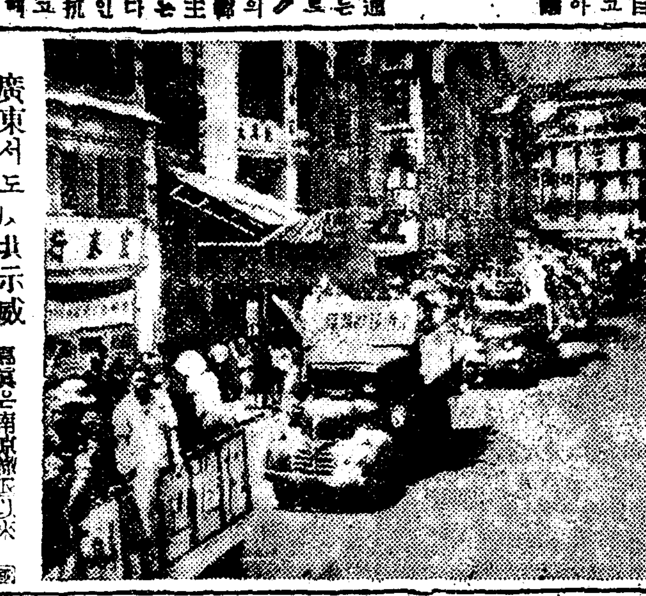
國聯韓委서
卄八日에全體會議

軍使團問題等에
辛彭氏談話

美經濟界에異狀
七月初美英이重大發表

中共側에서
香港返還要求說

駐日美軍再編
占領任務는一段落
NANA極東支配人報道



廣東서도反共示威 寫眞은南京撤退以來國民政府의首府로되어있는廣東市에서는六月十三日國民黨所屬勞動者들의反共產主義市街示威行進이擧行되었다示威群衆들은「트럭」에다가 孫逸仙、蔣介石、李宗仁등의肖像을싣고 共產主義打倒를웨치며行進하는光景【廣東AP發合同提供】

美失業者增加
保險金받는者만도二百餘萬

平和增進에効果
리總長이四相會議成果를讚揚

印國首都서
和軍近間撤退完了

美北大條約批准後에
極東防共策을强化乎
防共指導者에印「네루」首相說

埃及商船拿捕
國府側이上海附近서

美中關係報告書
國務省서作成中

三人代領이
失業者到達言明

土希首相逝去

經濟界

寒天自由製造에
新措置講究

香港貿 制限解除
新紙外民間取扱

未來停止

발칸共產路線과同一
宇紙의聯政樹立評

極東食糧情勢
惡化豫想

韓靑中執委會

在比日財產을引渡

美上院議員들이
中共承認反對

八面鋒

社說
所謂七月危機說에對하여

漢陽工科大學 學生募集

一、募集人員
學部(電氣工學科 機械工學科) 各科第一學年 約五○名
夜間學部(電氣工學科 機械工學科 建築工學科 土木工學科) 各科第二學年 若干名
二、應募資格 1、六年制各種中學校卒業者又는卒業豫定者 2、大學豫科專門部及大學第一學年修了者 3、其他文敎部長官이認定하는者
三、願書接受期日 自六月二十日至七月五日
四、試驗期日 自七月一日至七月五日
五、試驗科目 國語、數學、英語、社會生活、物理
注意 1、志願書用紙는本大學庶務課에서交付함
2、其他詳細한것은本大學敎務課에問議할것
서울市城東區新堂洞二五一
漢陽工科大學
電話東局(3)一五七七 三八三六番

經濟學全集 第五卷
經濟政策
延禧大學敎授 홍우 著
價 380圓(送料 40圓)
서울市 鍾路 二街八六
發行 博文出版社
發賣 博文書館
電光1169·3433 振替京城2023

☆新刊單行本☆
印度紀行
高凰京博士著
四六判一九二面定價三三○圓

☆乙酉文庫新刊☆
要路院夜話記
李秉岐 選解
菊半版一八○面·定價二二○圓

中國民族解放運動史序說
李辰永 著
菊半版三九二面·定價四八○圓

社會主義思想史
菊半判二四四面·定價三○○圓

☆乙酉文庫重刊☆
朝鮮史敎程
全錫淡 著(三版)
菊半版一六二面·定價一八○圓

經濟學入門
高承濟 著(再版)
菊半判二六一面·定價二○○圓

發行 乙酉文化社
總販 文章閣

◎晝間部七十名·夜間部五十名募集(各三個月修業)
夏季 男女 自動車運轉士短期養成
◎入學願書及案內書請求時는返信料를要함(電話東局(②)1313
서울市中區乙支路六街一八 朝鮮航空自動車學院

暖房裝置·蒸氣機關·水利水道
一般機材·工事請負
技術·迅速 信用本位
株式會社 鮮榮工務店
서울市中區南大門路五街二五
電話本局(②)八四二七番

權威의書 遂重版
빌노그라도브 著
朝鮮文藝研究會 譯
文學入門
四六判·高級紙·美本·180頁·320圓
일즉이 解放後 이땅의 讀書界를 찬란히 裝飾한 斯界의唯一한 指針書! 많은 人士와 眞執한 文學徒의 懇曲한要請에 依하여 마침내 重版을 내놓는다
서울市中區茶洞63
新學社
振替(本)5659番

六月二十七日
上午十時 市公館
下午二時 鍾路YMCA
反動國會議員聲討大
모으라! 愛國同胞는! 反動國會議員의賣國罪을!
그리고打倒하자! 民族의氣焰으로!
이것이建國의이다가다, 새歷史의進軍이다!
國會에서몰아내자! 共產黨앞잡이들!
選擧區는召喚하자! 賣國的國會議員을!
打倒하자粉碎하자! 一切의利敵者들!

移秧率六○%로急騰
廿二日까지降雨總量二百餘粍

降雨로發電量增加

漢江에暴風雨 浸水家七十戶

釜山飛行場 本館을수리

金若水氏드디어逮捕
廿五日早曉、市內雲泥洞서

그동안 국회푸락치사건에 관련되어 ... 지명수배중이던 김약수(金若水)국회부의장은 드디어 경찰에 체포되었다 ... 작二十五일 아침五시二十분경 시내운니동(雲泥洞)二二번지 김정업(金正業=女子)집에 잠복하고있는것을 종로서형사대가 체포하였다 ... (사진=김약수씨)

國防部政治局報道課二十五日發表=국회부의장 김약수(金若水)씨는 二十五일 오전五시二十분 운니동(雲泥洞)二二번지 김정업(金貞業=女子)집에서 종로경찰서원에게 체포되었다

擴大될지도未知
談 館中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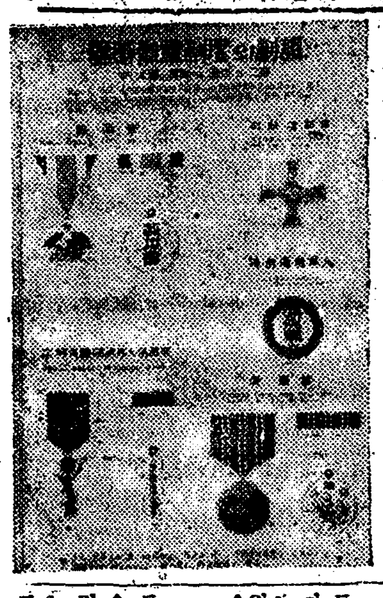
六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한데 대하여 ...

鄭達浩責付保釋

任女史事件 取消要求却下

大韓勞總調理師 組合聯盟을結成

臨時勳章制定
戰功將兵에게授與



군에서는 금번연구적인 당만장병들과 군항장병에게 훈장제도창설시까지 임시 별항과같은 공훈장을제정 훈장계급을 정하여전쟁전 하였다고한다 ...

三議員等遂起訴
李呈道氏는起訴猶豫로釋放

국회의원 이문원(李文源)... 이구수(李龜洙=三四) 최태규(崔泰奎=三○) 이정도(李呈道=三四) 등 도합五명은 ...

方台榮을不拘束取調

反民片德烈逮捕

土地改革實施는在邇
總費用十九億圓을國會提出

特委行動活潑
廿四日、柳濃龍逮捕

十勇―와는 惡質分子團束

中央農事技術院에서農家에警告
"모포기"의螟虫卵 일족驅除에힘쓰자

「운파산」을奪還
瓮津地方戰鬪는尚今도熾烈

防衛强化 國民大會

無許可飮食店에 嚴重團束을警告

金北中學校 新築落成式

長湍郡國民大會

驛前大韓旅行社 來一日부터再開

「常綠樹」上演

景武台警察署 開署式을擧行

刑務所長會議를 七月廿一日開催

大靑一 文化講座

軍樂奏演會

합聯盟鎭海向發

소년소설

나무껍질

이규엽

옥이는 아침을먹고 구녕 뚜러진 헌대야와 장갑과 고깨이를 들고 집근처에있는 목재소로 달려갔다. 옥이가 사는동리에는 여러가지 집이며 기구를 만들라고 재목을자르며 키는목재소가많다. 날마다 날마다 목재소앞마당에는 강에서 건너온 먼 통나무가 서리연 원목이 산같이 쌓인다.

원목에는 나무 껍질이 붙어있다. 나무껍질은 벗겨내야만 공장에 날러드리기 좋게 된다는것이다. 나무껍질은 공장에서 소용이 없기때문에 가까운 동리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벗겨가도 괜찮은것이다.

사실 장작을 사다 밥을 짓기란 현재 나무값이 오르기때문에 그리 쉬운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아버지 안계신 어머니아래 옥이네집으로서는 더그랬다.

남의집 삯바누질을 밤을 새워 하시어서 쌀과 나무를 사왔지만 요즘일제 병이나시어 자리에 누으신탓 부터는 없자는수가 없었다. 아홉살이 되도록 학교에도 가지못한 옥이는 남들처럼 책보를 끼고 학교에 가고 싶었다. 옥이는 밥을 고파 나무가 푹 떨어지는것은 그냥보고만 있을수는 없었다. 그래서 날마다 사흘째

옥이는 아귀 다란 목재소 앞뜰에 가와서 나무껍질을 벗기고있는것이다. 물에 젖인 껍질은 마당에 느러노면해볕에 잘 말랐다.

간밤에 어머니가 몹시 앓은소리를 하시어 다리를 주물러 드리느라고 눈으로 새웠더니 눈앞이 노─라고 아물 아물 하였지, 눈앞에 내려앉는것같았다.

미끄럽 미끄러운 나무의껍질이 오늘따라 잘 벗겨지지 않는다. 팔목이 시큰시큰하고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한다.

머리가 휑 잡아돌고는 앞이 불이번쩍 번쩍 나기도 한다.

그러나 옥이는 이를 악물고 껍질을 벗겨갔다. 옥이가 철구 풀설의 끝다란 나무를 깔고 앉아 창칼로 힘을 잔뜩주어 껍질을 벗려 미웠을때다.

옥이 눈깜작할 사이였다. 옥이는 창칼을 든채 ... 머리를 잡을 수없게 크자리에 픽 쓰러졌다. 날카러운창칼날이 옥이의 왼편 엄지 손가락 ... 나갔다 시뻘건피가 콸콸 손을 적시었다. 바로그때였다. 옥이 바로 옆에서 껍질을 벗기고 있던 곰보 할머니가 와락 달려 오셨다

『에 옥이야 아이구 이를 어째! 정신 채려라 정신 응 옥이야!』

곰보할머니는 새파라케 질린 옥이의얼굴을 바라보자 가슴이 덜컥 주저앉았다.

원손목에서 치마에 이르기까지 피가 시뻘어게 물드러 있었다. 곰보할머니는 치마자락을 푹 찟저 옥이 손고락을 꽉잡아맸다. 그리고 옥이를 안 곧장 가까운데 있는 어느 병원으로달려갔다. 젊은 의사는 퍽 상냥하고 친절하며 사람이좋왔다.

낙시같은 바늘에 실을 꿰여가지고 의사는 재빠르게 반이상이나 잘리진 옥이의 손고락을 꼬매주었다.

수술을 받은 옥이는바늘끝이 살에들어갈때 나올적마다 외마디 소리를 첬다. 주사를 맞고나서야 옥이는 눈을사르르 감었다. 곰보할머니는 눈을손으로 가리고 얼굴을 찌푸리었다.

『아이구 참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헌 얼마 게잡나……』

곰보할머니는 몇번이나 의사선생님앞에 머리를숙으리었다.

의사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실뿐이다.

『약값이 얼맙니까?』

『고만두십오 괜찮습니다』

의사선생님은 곰보할머니께서 옥이의 대강이야기를 드르시였던것이다.

『그렇게 허셔서 이걸 미안해서 어떻겁니까』

『별말씀 다하십니다 저는 이런병자들보고면 공연히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돈을받다니 말이됩니까. 약값을 받으면 이런 때엔 가슴이 편안치 않답니다. 날마다 다 날때까지 병원에 다니게 하십쇼』

곰보할머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서로 욕하고 무러든고 짓밟고 때려죽이며 서로 잡으려고 눈이 빨애저가지고 덤비는 요즘 세상에 이런사람도 있담.

흘러둘이 콘거리를 휩쓸고있을때 소리는 크ㄴ않으나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잔잔한 맑고고흔 산골자이물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의사같는 사람일것이라고 곰보 할머니는 생각하는것이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옥이도 정신을 채리고 의사선생님앞에 머리를숙이었다. 의사선생님은 옥이의고드러진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었다

『잘가라 아무근심 말구 오너라』

『네 선생님안녕히계셔요』

『아이구 선생님 참고맙습니다 또 오겠읍니다』

곰보할머니는 옥이를 등에 업고 병원문을 나섰다. 할머니 등에도 옥이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소리없이 가득자올랐다. 그것은 겻잡을수없는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을것이었다. 의사선생님은 손을 흔들면서 골목으로 사라지는 할머니와 옥이의모습을 언제까지나 처다보고 계시였다. 뜨거운 여름 해볕은 결코 더웁지 않았었다. 하늘에는 한구름이 뭉게 뭉게 솟갈이 피어오르고있었다.

(끝) 1949. 6. 14

어린이

長篇小說 群像 (12)

朴泰遠作 金重壤畵

序章 (十二)

오늘의라디오

液虫殺一 韓一製藥所 서울市中區桃洞二街95 電話本局(2)2421

化粧品部 大昌洋行

急賣 店舖 住宅

聲明書

腸疾患에 트리가볼 TRICABOL

學生募集 永登浦女子中學校

學生募集 永登浦工業中學校

窓유리多量入荷 高麗硝子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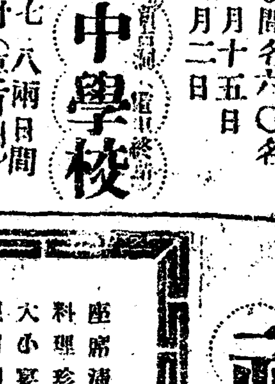
入荷 椰子油(少量도分賣) 永安公司

學生募集 中學速成科 英語科 서울英語學院 서울高等學館

生命水 東亞藥品貿易株式會社

社會科學大辭典 來出遂販冊의望待 定價1700圓 發行所 文友印書館

朝鮮料理 食道園



學生帽子 京城製帽店